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타당화연구

김 은 경[†]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의 문화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벤쿠버 문화적응척도(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를 탈북자에 적절하게 변안하여 탈북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척도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척도 전체 .63, 북한문화적응 하위척도 .80, 남한문화적응 하위척도 .82로 나타났다. 북한문화적응, 남한문화적응의 두 개의 하위척도를 잘 대표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문항-하위척도간 상관이 낮은 문항 4개를 제거한 후,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2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 CFI .865, TLI .830, RMSEA .080으로 나타나, 남한문화적응과 북한문화적응의 2개의 요인 구조가 적절한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적응 관련 변인, 탈북자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유형척도, 북한소속감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관련 변인들이 대체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구성타당도를 지지하였다. 한편, 자기효능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이질적인 구성개념과 변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문화적응척도가 남한 공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공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을 잘 변별해주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두 집단을 타당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응, 탈북자, 척도 타당화, 벤쿠버 문화적응척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경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Fax : 02-3290-1541 / E-mail : ekkim94@hanmail.net

2008년 6월 기준 탈북자의 입국이 1만 4천 명을 넘어섰다(통일부 자료실, 2008).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유형이 다양화되며 탈북자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지원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의 정신건강 지원 역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탈북자의 심리적 적응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부적응지표나 병리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6; Jeon et al., 2005), 이러한 연구들이 문화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의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여(채정민, 2004), 탈북자들의 효율성 있는 남한 내 정착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살펴볼 때, 탈북자는 북한에서의 다양한 외상 경험과 탈북과정, 남한 입국이후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어 심리적 적응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실무자들의 시행착오는 반복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탈북자들이 전문적인 도움 요청을 회피하고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김성희, 김현아, 2005). 즉, 탈북자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경향이 강한 북한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 이용 체계를 낯설어 하여(김연희, 2005),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자기해결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김현아, 2005). 또한, 북한사회의 상호감시문화와 더불어, 재복송, 고문, 사별 등 탈북의 과정에서 겪은 강도 높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에 대한 자기 은폐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 혹은 제 3국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성과 태도는 탈북자의 심리적 문제의 표출 양상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들이 탈북자에 대한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탈북자의 문화적응을 돕는 별도의 훈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윤여상, 2006). 이는 탈북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 차이나 특수성을 고려하려는 한국사회의 인식과 노력이 간과되었던 데서 비롯되며, 이러한 양상은 임상 및 상담 실무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를 위한 임상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간 훈련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괴리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탈북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는 우리와 민족적 뿌리가 동일하지만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서 정서와 감정, 인지방식 등이 남한과는 다르게 형성된 바, 가치관, 생활양식, 규범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채정민, 2004). 따라서, 탈북자들이 남한정착이라는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가치, 태도 등 행동의 연속성과 변화를 문화적응(accultur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탈북자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문화적응이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동할 때, 자기 정체감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문화 내의 경험과 정보에 적응하기 위해 수정되는 과정을 일컬으며,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Redfiel,

1936). 본래 집단 수준의 현상을 지칭하였던 문화적응의 개념은 현재는 개인 수준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때의 문화적응은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이라고 개념화 되는데, 집단적으로 문화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문화 집단 속의 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Moyerman & Forman, 1992). 탈북자는 북한에서 살지 못하여 떠났다는 점에서는 난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자발적 이주라는 점에서 이민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원문화와는 다른 문화에 접촉하여 살고 있다는 점에서(정진경, 양계민, 2004), 심리적 문화적응의 관점은 탈북자의 적응을 이해하는데도 유용한 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은 미흡했던 바,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요구된다. 탈북자의 문화적응 척도는 임상 및 상담 실무영역에서 실용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적응의 한 부분으로서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 측정은 남한이라는 새로운 문화로의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태도 등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알아봄으로써, 남한 내 탈북자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즉, 문화적응 측정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과 어려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탈북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의 문화적응 측정은 남한 정착시기, 교육경험, 성별, 연령 등 문화적응 관련 변인이나 개인의 다른 심리적 변인에 따라 문화적응 양상

의 차이를 객관화하여 측정함으로써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심리적 적응지원 전반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는 탈북자에 대한 심리검사 해석과 진단에 있어 중재요인 또는 매개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바, 탈북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필요하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MMPI 프로파일에서 소수인종집단과 주류집단이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문화적응 수준을 통제한 후 감소되었는데(Montgomery, Arnold, & Orozco, 1990),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된 검사결과를 해석할 때 문화적응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탈북자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남한사람 일반과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리평가와 진단에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 바, 탈북자의 문화적응 척도 타당화는 심리평가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탈북자 집단 전체가 높은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이 질병의 개념과 증상표현, 정신건강기능, 정신건강 시스템 이용과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Atkinson, Tompson, & Grant, 1993). 따라서,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에 회피적인 성향이 있는 탈북자들을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모색이 필요한데(윤여상, 2006), 이 과정에서 문화적응 양

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탈북자의 문화적응 척도는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입의 방법을 차별화하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적응척도 개발의 흐름

문화적응 과정 이론은 단일차원의 모델과 이차원모델로 나누어지는데, 두 접근의 근본적인 차이는 원문화와 주류문화와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달려 있다. 단일 차원적 접근에서 개인은 강한 원문화 정체성에서 강한 주류문화 정체성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가정된다(Gordon, 1964). 반면에, 이차원적인 접근에서 문화적응은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정체성이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한다(Berry, 1980, 1992). 문화적응에 관한 이차원적 접근은 Berry와 Sam(1997)의 문화적응 틀 이론을 토대로 하는데, 그의 이론에서는 문화적응의 유형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범주화하였다.

문화적응의 단일차원 모델은 원문화의 가치와 태도, 행동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문화적응으로 보는 반면, 이차원적 접근에서는 원문화에서 형성된 정체감을 포기하지 않고도 주류문화의 행동과 가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적응에 관한 이차원적 관점에서는 단일차원의 문화적응 측정 도구가 양문화에 모두 강하게 동일시하지 않는 개인을 구별할 수 없어 문화적응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문화적응의 양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반박한다(Mavreas, Bebbington, & Der, 1989). 따라서, 문화적응에 관한 단일차원적 시각은 통합

(integration) 또는 양문화 정체성(biculturalism)과 같은 개념을 포괄하는데 실패한다고 지적하며(Dion & Dion, 1996; Ryder, Alden, & Paulhus, 2000에서 재인용), 최근 논의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 지원하며 원문화와 수용국 문화의 상호변화를 통한 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이념적 지향과 논리의 변화만이 아니고,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4).

남한 내 탈북자의 문화적응에 이와 같은 이차원적 접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분단이 해소되지 않은 정치적 상황에서 탈북자의 원문화인 북한문화정체성이 때로는 한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출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민족적 근원이 동질적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사회 및 경제체제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급격한 문화적 차이와 혼란 경험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안과 결부되지 않은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탈북자의 원문화적응은 주류문화인 남한문화적응과 더불어 문화적응 이해의 중요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의 측정은 특정한 이주민집단이나 인종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문화적응의 공통적 요소를 측정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적응과 유사한 개념이자 더 넓은 개념인 사회 정체성의 하나로 인종 정체성(ethnic identity)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인종의 정체성을 평가한 도구들이 주류를 이루다가(Cuellar, Harris, & Jasso, 1980; Cuellar, Arnold, & Maldonado, 1995; Suinn, Khoo, & Ahuna, 1995; Marin & Gamba, 1996), 인종 정체

성 형성과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험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다(Phinney, 1992; Stephenson, 2000). 문화적응에 대한 구성개념은 개념적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어 측정상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러 가지 요소나 수준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응 척도와 관련한 이전 연구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측정된 문화적응의 구성개념은 소속한 문화집단과의 동일시, 자부심과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 원문화 집단 및 주류문화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사용과 선호,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에 대한 신념 등을 들 수 있다(Phinney, 1992; Stephenson, 2000; Zea, Anser-Self, Birman, & Buki, 2003).

탈북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채정민, 한성렬, 허태균, 김동직(2002)은 Berry(1980)의 문화적응 유형 개념에 근거하여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유형척도를 개발하였으며, 탈북자의 남한 내 문화적응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척도를 사용한 바 있다(채정민, 2004). 또한,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2004)는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계 미국인 인종정체성 척도(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 KAEIS)를 탈북자에 맞게 번안하고 요인 분석을 거친 후 남한 문화 정체감, 북한문화 정체감의 2가지 요인을 가진 척도를 사용하여 거주 기간경과에 따른 문화정체감 과정의 변화를 횡단연구한 바가 있다. 이 척도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에 관한 척도를 적용해 본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척도의 요인분석만을 실시해 척도의 타당도를 충분히 검토하

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이며 이 범위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은 약 2,500명으로 전체 탈북자의 약 17%에 해당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남한 적응을 살펴보면, 학력의 결손과 재북 가족과의 결별, 남한정착이후 가족구조의 불안정 등으로 적응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가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남한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20대 초중반의 초기 청년층 탈북자들이 대거 영국 등 유럽지역으로 새로운 이주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에 탈북자 지원정책의 실패라는 자괴감과 더불어 탈북자에 대한 비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은 자기정체감의 형성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문화적응은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과도 관련 있을 뿐 아니라, 탈북청년들의 재이주현상에서 볼 때 탈북청소년을 교육하고 미래의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yder, Alden과 Paulhus(2000)의 밴쿠버 문화적응 척도(Vancouver Index Acculturation: VIA)를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청소년 문화적응의 특수한 양상보다는 문화적응의 공통적인 구성개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적응이라는 이슈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는 Berry(1980)의 문화적

응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응의 이차원성을 반영한 원문화 척도와 주류문화 척도의 2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개념으로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념, 원문화 및 주류문화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원문화 및 주류문화의 춤, 노래, 유머 등 문화적 양식에 대한 선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연구에서 문화적응의 공통요소로 추출된 구성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벤쿠버 문화적응척도와 이전에 연구된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와 차이점을 살펴보면, 채정민 등(2002)이 개발한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 척도는 문화적응 전략의 지향과 심리적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미래지향적 의미가 강한 반면, 벤쿠버 문화적응척도는 현재의 문화적응 양상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도나 관념적 지향이 혼입되지 않은 문화적응 양상을 더욱 잘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명자 등(2004)이 탈북청소년에 적용하여 번안한 한국계 미국인 인종정체성 척도(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 KAEIS)는 대상이 탈북청소년에 한정되어 번안되었으며, 문화적응 정체감 척도로 발달적인 의미가 강하며 중복된 문항이 많아 다소 질문문항이 긴 반면,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벤쿠버 문화적응척도는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에 쓰일 수 있으며, 문화적응 양상을 보다 명백하면서도 간결하게 측정하고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Ryder 등(2000)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계 캐나다인 대학생 454명을 대상으로 벤쿠버 문화적응 척도(Vancouver Index Acculturation: VIA)의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그들은 타당화 과정에서 성격 특성 변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심리적 증상 등 문화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원문화, 주류문화 척도가 독립적인 이차원성을 갖고 있음을 건고하게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쿠버 문화적응 척도(Vancouver Index Acculturation: VIA)를 국내 탈북자에 맞게 번안하고 문항을 보완한 후,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척도 타당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충청도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와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의 협조를 얻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3곳과 공동생활시설 1곳에 소속을 두고 있는 만 12세-25세의 탈북청소년을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3곳 중 2곳은 기숙시설이 함께 있는 학교이며 1곳은 통학형 학교였다. 연구대상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23명, 여자 47명이었으며, 가족동반입국 상태는 무연고 10명, 부모동반입국 49명, 부모 외 가족 동반입국 11명이었다. 연령, 거주기간, 교육기간과 관련된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도구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

탈북자의 문화적응을 북한문화적응과 남한 문화적응의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기 위해, Ryder 등(2000)이 개발한 벤쿠버 문화적응척도(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20개로 원문화척도 10개, 주류문화 척도 10개이며, 9점 리커트 척도

로 각 문항에 대하여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9점 ‘전적으로 동의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원문화 척도, 주류문화 척도 각각 .53, .3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두 하위척도간 상관은 -.20으로 나타나 하위척도간 직각성을 보이고 있었다. 신뢰도가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 척도가 문화적응 가운데 언어사용과 선호를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아, 타당화의 연구 대상이었던 중국계 미국인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내 중국계 캐나다인은 언어적 이질성을 경험하는 집단인 반면, 남한 내 탈북자는 말투, 표현단어, 낱어 등에서 남북언어의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남한사람과 언어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므로, 언어 외의 문화적응 양상을 측정하는 벤쿠버 문화적응 척도가 탈북자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도구라고 판단하여 탈북자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유형척도

채정민 등(2002)이 Berry의 심리적 문화적응 유형 개념에 토대를 두어 만든 척도로, 총 16문항이며 북한문화 지향성(NKCO: North Korean Culture Orientation) 8문항, 남한문화 지향성(SKCO: South Korean Culture Orientation)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정민(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남한문화 지향성 .74, 북한문화 지향성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남한문화 지향성 .74, 북한문화 지향성 .79로 나타났다.

북한 소속감 척도

Phinney(1992)가 문헌 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종 정체성 일반의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구성된 다인종 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 가운데 인종 소속감 및 인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종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 태도, 인종정체성 획득을 위한 노력, 인종적 행동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 가운데 탈북자의 북한출신자로서의 소속감을 알아보기 위해 인종소속감 및 긍정적 태도 척도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을 연구대상에 맞게 번안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 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북한출신으로서의 소속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척도의 Cronbach α 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4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

Bandura(1977)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의거하여 Sherer와 Maddux(1982)가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척도를 이해선(1995)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선(1995)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89, 사회적 자기효능감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80, 사회적 자기효능감 .67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탈북자 문화적응척도를 제작하기 위해, Ryder 등(2000)이 만든 벤쿠버 문화적응척도(VAI:

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변안하였다. 원저자인 Andrew G. Ryder에게 척도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상담심리학 박사 1인이 한국어로 1차 변안을 하였다. 이때에, 원척도의 내용에 충실하게 변안하되, 원문항 가운데 주류문화와 원문화의 전통예식 참여에 관한 질문은 북한식, 남한식 말투사용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질문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탈북자가 북한에서 유지해왔던 전통예식을 남한에서 보존하는 것과 같은 문화현상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원척도에서는 언어 사용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언어 사용은 이전 연구에서 문화적응의 주요한 구성개념으로 나타났던 바, 탈북자들이 가장 이질성을 느끼기 쉬운 말투 사용에 관한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1차 변안이후, 이중 언어 사용자인 사회심리학 박사 1인이 영어로 역번역하여 원문항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후, 역번역한 문장을 원저자에게 보내어 검토요청을 한 후, 번역오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번역된 문항들을 탈북자 2인, 탈북자 상담실무 3년차 이상인 상담심리학사 1인에게 표현상에 있어 공격성, 무례성, 문화적 편견의 존재, 특정 문항과의 혼란 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후 피드백을 얻어 문항을 최종 수정하였다.

자료분석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요인 수 확인을 위하여 Amos 7.0을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를 산출하

고, 문화적응 관련 변인,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유형척도, 북한 소속감 척도, 자기 효능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관련 변인 특성

문화적응척도 타당화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운데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연령, 거주기간, 교육기간을 표 1과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연령의 범위는 12세 - 25세, 남한 입국 연령의 범위는 6세 - 24세, 남한 거주기간의 범위는 4개월 - 7년, 남한 교육기간의 범위는 6개월 - 7년이였다. 한편, 성별의 비율이 남자 23명, 여자 47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2배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탈북자 전체 중 여성 비율이 65%로 남성비율인 35%의 2배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모집단의 구성비율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정민(2004)의 연구에서 성인 탈북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남한문화 지향성, 북한문화 지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바,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성별비율의 차이가 척도 타당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남한문화적응과 북한문화적응의 성별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뢰도(내적 일치도와 문항-총점간 상관)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표 1.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관련 변인 특성(N=70)

		평균	표준편차
연령	현재 연령	18.13세	2.58
	남한입국 연령	15.60세	3.38
	탈북 연령	14.13세	3.32
거주기간	남한 거주기간	2.89년	1.78
	제3국 체류기간	1.51년	2.10
교육기간	남한 전체교육기간	2.38년	1.71
	남한 일반학교 교육기간	1.15년	1.64
	남한 대안학교 교육기간	1.22년	1.09
	북한 교육기간	4.40년	2.91
	중국 교육기간	.36년	1.09

표 2.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 점수의 성별간 차이검증

	남자 (N=23)	여자 (N=47)	t (df=68)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남한문화적응	63.52(14.82)	62.19(10.84)	.42
북한문화적응	35.30(12.21)	38.23(13.44)	-.88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전체 내적 일치도는 .63이었으며, 북한문화적응 척도 .80, 남한문화적응 척도 .82로 원척도의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탈북자에 적용하여 번안한 척도가 원척도의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예상한 바대로 탈북자가 남한사람과 언어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인 바, 언어 외의 문화적응 양상을 훨씬 비중있게 측정하는 본 척도의 일관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가 .63으로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의 구성이 남한문화적응, 북한문화적응이

라는 이질적인 문화의 적응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는 바, 이를 포괄하는 문항 전체의 일치도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문항 - 하위척도 상관 범위는 북한문화적응 하위척도에서 .38에서 .59, 남한문화적응 하위척도에서는 .31에서 .65로 나타났다. 북한문화적응, 남한문화적응의 두 개의 하위척도를 잘 대표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가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을 살펴해보았는데, 남한문화적응 척도 가운데 2번 문항(‘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남한 말

씨를 쓰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이 .31, 4번 문항('나는 남한 출신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이 .36, 14번 문항('나는 남한문화의 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35로 문항-총점간 상관계수가 .40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문화적응 척도 가운데 3번 문항('나는 나와 같은 북한출신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이 .38, 13번 문항('나는 북한문화의 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39로 문항-총점간 상관이 .40 미만에 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항-총점 상관이 .40 미만인 문항의 쌍을 살펴보면, 각 하위 척도의 결혼 선호의 대상, 문화풍습 유지의 중요성에 관한 문항이었다. 결혼 대상 선호 문항은 연구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거리감이 있는 질문인데다, 문화적응 외에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가치에 대한 신념은 문화에 대한 실제적 적응보다는 관념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며, 15, 16번 문항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 4개의 문항을 제거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 4, 13, 14문항을 제거하였다. 한편, 2번 문항의 경우 .40 미만의 문항-총점 상관을 보였으나, 이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북한문화적응 척도의 1번 문항('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이 .51로 강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척도 구성개념의 동등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거하지 않고 최종 문항에 포함하였다.

이 밖에, 북한문화적응 하위척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문항은 17번 문항('나는 북한출신 친구를 사귀는데 관심이 많다', $r = .59$)과 19

번 문항('나는 북한식 유머나 농담이 즐겁다', $r = .54$)이었고, 남한문화적응 하위척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문항은 20번 문항('나는 남한식 유머나 농담이 즐겁다', $r = .65$), 8번 문항('나는 남한출신 사람과 일하는 것이 편하다', $r = .65$)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머나 농담에 대한 선호가 각 하위척도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었다.

요인구조와 모형의 적합도

탈북자문화적응척도의 원척도인 벤쿠버 문화적응척도(Vancouver Index Acculturation: VIA)의 타당화 과정에서 문화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련성 검증을 통해, 2개의 하위척도인 원문화척도, 주류문화척도가 독립적인 이차원성을 갖고 있는 척도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이 원척도에서 원문화, 주류문화라는 두 개의 요인구조가 검증된 바 있어, 탈북자 문화적응척도가 문화적응에 관한 이차원 모델을 가정하고 있는 원척도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북한문화적응, 남한문화적응의 2개 요인구조 적합성을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16문항에 대해 Amos 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탈북자 문화적응척도는 주류문화인 남한문화적응, 원문화인 북한문화적응의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원문화 및 주류문화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원문화 및 주류문화의 문화양식에 대한 선호와 같이 동일한 문화적응의 개념을 남한, 북한의 양쪽 문화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문화적응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북한문화적응, 남한문화적응의 문항쌍

표 3.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문항의 신뢰도 및 수정된 문항-총점간 상관

내 용		수정된 문항 -총점간 상관
북한문화적응 하위척도 10문항		
1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	.50
3	나는 나와 같은 북한출신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38
5	나는 나와 같은 북한출신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적 모임이 즐겁다(예: 모임, 운동, 여행 등)	.44
7	나는 나와 같은 북한출신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편하다	.50
9	나는 북한의 음악, 춤, 노래 등을 즐긴다	.46
11	나는 전형적인 북한식으로 행동하는 때가 자주 있다	.45
13	나는 북한의 문화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9
15	나는 북한 문화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
17	나는 북한출신 친구를 사귀는데 관심이 많다	.59
19	나는 북한식 유머나 농담이 즐겁다	.53
Cronbach α		.80
남한문화적응 하위척도 10문항		
2	나는 여러사람 앞에서 말할 때 남한 말씨를 쓰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	.31
4	나는 남한출신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36
6	나는 남한출신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적 모임이 즐겁다(예: 모임, 운동, 여행 등)	.62
8	나는 남한출신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편하다	.65
10	나는 남한의 음악, 춤, 노래 등을 즐긴다	.52
12	나는 전형적인 남한식으로 행동하는 때가 자주 있다	.52
14	나는 남한의 문화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6
16	나는 남한 문화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1
18	나는 남한출신 친구를 사귀는데 관심이 많다	.54
20	나는 남한식 유머나 농담이 즐겁다	.65
Cronbach α		.82

이 높은 상관을 가질 것으로 가정된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은 남한출신 사람, 북한출신 사람 양쪽 모두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한 가지 문화양식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경우 남한 및 북한의 양문화 모두에서 그 문화양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 문항

쌍 간의 상관이 있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척도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북한문화적응 요인, 남한문화적응 요인 내에서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오차항을 공변량으로 묶어 남한문화적응과 북한문화적응의 2요인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탈북자문화적응 척도의 요인구조 적합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 검증 결과는 기각되었다, $\chi^2 = 136.57, p = .003$. 한편, χ^2 을 df로 나눈 값, 즉, CMIN/DF 값이 3보다 적어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4). 또한, 적합도 지수 CFI .865, TLI .830, RMSEA는 .080(90% 신뢰구간: .047-1.08)으로 나타났다. χ^2 검증은 영가설 내용이 너무 엄격하며 χ^2 값이 모형 오류뿐 아니라 표본 크기의 영향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적합도 지수로 TLI, CFI, RMSEA는 모두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로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TLI, CFI, 는 대략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요인구조모형이 이에 미치지 못하나 .9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RMSEA는 구조방정식모형과 자

료의 부합성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써 RMSEA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보통 정도의 적합도는 .10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바(Brown & Cudeck, 1993;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2요인 구조모형은 RMSEA .080으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타당도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 선정된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16문항과 문화적응 관련 변인,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유형척도, 북한소속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공존타당도

후속 이민 세대일수록 주류문화적응의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원문화적응 수준은 낮아지며(Cellular, Arnold, & Maldonado, 1995), 이민 세대가 경과할수록 주류 문화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는 반면, 원문화에 대한 몰입정도는 낮아진다는 이전 연구결과(Magana, Rocha, Amsel, Magana, Fernandez, & Rulnick, 1996)들에 기초하여, 원문화 척도와 주류문화 척도로 구성된 문화적응척도의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

표 4.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지수

모형	$\chi^2(df=95)$	CMIN/DF	RMSEA(90%CI)	CFI	TLI
탈북자문화적응척도의 2요인모형	136.57**	1.43	.080(.047-.108)	.865	.830

주.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Confidence Interval. ** $p < .01$.

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적응척도와 이민세대와의 상관관계 또는 이민세대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던 연구방법을 고려하여(Stephenson, 2000; Zea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연령, 남한 거주기간, 남한 교육기간과 문화적응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령면에서 남한 입국연령과 탈북연령을, 남한거주기간 측면에서 연령대비 남한정착기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남한 거주비율과 남한거주기간을, 남한교육기간 측면에서는 남한교육기간 전체와 더불어 공교육 기간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육 기간을 구분하여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5 참조). 이와 같이, 문화적응 관련 변인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첫째, 남한문화적응은 남한 입국연령($r = -.44, p < .001$), 탈북연령($r = -.27, p < .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남한거주기간($r = .39, p < .01$), 남한거주비율($r = .44, p < .001$), 남한 교육기간($r = .36, p < .01$), 남한 공교육기간($r = .43, p < .001$)과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북한문화적응은 남한 입국연령($r = .34, p < .01$), 탈북 연령($r = .27,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남한거주기간($r = -.11, ns$), 남한거주비율($r = -.21, ns$), 남한 교육기간($r = -.18, ns$)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남한 공교육기간($r = -.33, p < .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간은 북한문화 적응과 유의하지는 않으나 정적 상관을($r = .20, ns$), 남한문화적응과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 상관($r = -.07, ns$)을 나타내었다. 남한 교육기간의 일부이기도 한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간이 이 같은 상관 양상을 보인 것은,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이 남한 청소년과의 교류비중이 낮고 오히려 탈북청소년들끼리의 응집력과 사회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응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남한문화적응은 입국 및 탈북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한 거주기간, 남한 교육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문화적응은 입국 및 탈북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한거주기간, 남한교육기간이 길수록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교육기간 가운데서는 남한 공교육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북한문화 적응정도는 대체적으로 남한거주기간, 교육기간보다는 입국 및 탈북연령이 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문화적응 관련 변인과의 상관이 대체로 유의하였으며,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두 개의 하위척도와 상관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구별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공존타당도를 지지하였다.

표 5. 문화적응척도 점수와 문화적응 관련 변인의 상관

	남한문화적응	북한문화적응
남한입국 연령	-.44***	.34**
탈북 연령	-.27**	.27*
남한 거주기간	.39**	-.11
남한 거주비율	.44***	-.21
남한 교육기간	.36**	-.18
남한 공교육기간	.43***	-.33*
남한 대안교육기간	-.07	.20

* $p < .05$, ** $p < .01$, *** $p < .001$.

구성타당도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하위 척도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유형 척도, 북한 소속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척도의 남한문화적응은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유형 척도의 하위 척도인 남한문화 지향성(SKCO: South Korean Culture Orientation)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35, p < .01$), 북한문화 지향성(NKCO: North Korean Culture Orientation)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각각 나타내었으며($r = -.27, p < .05$) 북한 소속감과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r = -.21, ns$). 한편, 본 척도의 북한문화적응은 북한문화 지향성, 북한 소속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각각 $r = .68, p < .001, r = .48, p < .001$), 남한문화 지향성

과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r = -.21, ns$).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는 남한문화적응과 북한문화적응이라는 하위척도 개념과 유사한 탈북자 문화적응 전략유형 척도, 북한 소속감 척도와 대체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남한문화적응 척도가 남한문화 지향성과 정적 상관, 북한문화 지향성, 북한 소속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북한문화적응 척도는 북한문화 지향성, 북한소속감과 정적 상관, 남한문화 지향성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2개의 하위척도가 일관되게 구별된 상관방향을 보이고 있는 바, 본 척도의 두 개의 하위 척도가 남한문화 적응과 북한문화 적응이라는 구성개념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77), 전반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 한편, 문화적응은 원문화에서 형성된 정체감이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과 구별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과 질적으로 다른 구성개념인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응이 변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와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7에서 제시된 결과를

표 6.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탈북자 문화적응전략 유형척도, 북한 소속감과의 상관

	남한문화적응	북한문화적응
남한문화지향성	.35**	-.21
북한문화지향성	-.27*	.68***
북한 소속감	-.21	.48***

* $p < .05$, ** $p < .01$, *** $p < .001$.

표 7.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상관	편상관	상관	편상관
남한문화적응	.17	.13	.32**	.18
북한문화적응	-.10	-.11	-.13	-.08

** $p < .01$.

살펴보면, 북한문화적응은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각각 $r = -.10, -.13, ns$). 한편, 남한문화적응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 = .32, p < .01$),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냈다($r = .17, ns$). 한편, 원척도에서 주류문화적응 척도와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문화적응 관련 변인 중 거주기간과 교육기간을 통제한 방법을 참고하여, 남한 거주기간과 남한 교육기간을 통제 한 후 남한문화적응과 자기효능감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자기 효능감($r = .13, ns$), 사회적 자기 효능감($r = .18, ns$)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탈북자 문화적응척도는 문화적응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성개념과 변별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거 타당도

본 연구의 척도가 공교육 유경험 집단과 공교육 무경험 집단을 타당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간 문화적응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구분의 기준은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과거에 일반 공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험의 유무로 삼았다. 분석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공교육 유경험 집단은 무경험집단에 비해 남한문화적응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t(df=68) = 3.61, p < .001$, 북한문화적응은 유의하게 낮은 차이가 관찰되어 $t(df=68) = -2.06, p < .05$, 탈북자 문화적응척도는 공교육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타당하게 구분하고 있는 바, 남한문화적응과 북한문화적응 하위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Ryder 등(2000)이 개발한 벤쿠버 문화적응척도(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를 탈북자에 맞게 변안한 탈북자 문화적응척도를 발달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문화적응이 사회적응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의 요인구조 적합성을 검증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3이었으며, 하위척도인 남한 문화적응척도 .82, 북한문화적응척도 .80으로 원척도의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척도가 남한, 북한이라는 이질적인 하위문화적응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포괄하는 문항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

표 8. 공교육 유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의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점수 차이검증

	공교육 유경험 집단 (N=38)	공교육 무경험 집단 (N=32)	t (df=68)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남한문화적응	54.26(9.35)	46.10(9.51)	3.61***
북한문화적응	27.47(10.71)	32.84(11.03)	-2.06*

* $p < .05$, *** $p < .001$.

다. 각 하위문화의 대표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문항-하위척도간 상관을 살펴본다. 문항-하위척도간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결혼 선호대상, 문화풍습 유지의 중요성에 관한 문항 4개였다(3번 문항: '나는 남한출신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r = .38$, 4번 문항: '나는 나와 같은 북한출신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r = .36$, 13번 문항: '나는 북한문화의 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 = .39$, 14번 문항: '나는 남한문화의 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 = .35$). 한편, 본 척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유머나 농담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문항이 각 하위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원척도인 벤쿠버 문화적응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원문화적응, 주류문화적응의 2개 요인 구조가 검증된 바 있었으므로, 문화적응의 이차원모델을 바탕으로 원척도에서 가정한 대로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에서 주류문화인 남한문화적응, 원문화인 북한문화적응의 2개 요인구조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FI .865, TLI .830, RMSEA는 .080(90% 신뢰구간: .047-1.08)로 나타나 비교적 적절한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원문화 척도와 주류문화 척도로 구성된 문화적응척도의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문화적응척도와 이민세대와의 상관관계 또는 이민세대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던 연구방법을 고려하여(Stephenson, 2000; Zea 등, 2003; Cueller 등, 1995),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연

령, 남한 거주기간, 남한 교육기간과 문화적응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한문화적응은 입국 및 탈북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한 거주기간, 남한거주비율, 남한 교육기간 전체와 남한 공교육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문화적응은 입국 및 탈북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한 거주기간, 남한 교육기간 전체가 길수록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남한 공교육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간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북한문화 적응과 정적 상관을, 남한문화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 같은 상관 양상을 보인 것은,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상, 남한 청소년들과 교류 없이 탈북청소년들과의 응집력과 사회성이 더 많이 요구되어 남한문화적응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있으며 북한문화적응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화적응 척도는 남한문화적응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응 관련 변인과의 상관에서 유의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남한거주기간, 교육기간 전체보다는 입국 및 탈북연령, 남한 공교육기간이 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남한 거주기간과 교육기간의 길이보다는, 남한에서의 교육경험의 형태나 북한문화가 정체성의 일부로 형성되었던 연령시기가 북한문화적응정도와 더 높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저연령 일 때 남한에 입국하거나 탈북하였을 경우 북한문화적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문화를 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문화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며,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크며 학교생활이 주요

생활영역인 청소년기에 남한 또래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공교육 경험 역시 남한문화적응의 요구가 많은 상황으로, 공교육기간이 길수록 북한문화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거주기간은 남한문화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북한문화적응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소수집단이 문화적응의 초기에 원문화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다가 저항과 반작용으로 높은 평가를 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합리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며, 대체로 원문화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상승된 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소수집단 정체감 발달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Atkinson, Morton, & Sue, 1998), 남한 거주기간의 경과가 반드시 낮은 북한문화적응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문화적응 관련 변인과의 상관이 대체로 유의하였으며,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두 개의 하위척도와 상관의 방향이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공존타당도를 대체로 지지하였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척도와 구성개념이 유사한 탈북자의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유형 척도, 북한 소속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척도의 남한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문화 지향성이 유의하게 높고 북한문화 지향성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북한 소속감과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본 척도의 북한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문화 지향성, 북한 소속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한문화 지향성과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는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타 척도들과 대체로 적절히

수렴, 변별되고 있는 바, 이 척도가 남한문화적응과 북한문화적응이라는 문화적응의 이차원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과는 다른 심리적 구성개념인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북한문화적응은 예상대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 남한 문화적응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77), 문화적응 과정에서 북한문화보다는 남한문화 적응의 요구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성공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남한문화 적응의 정적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류문화적응 척도와 다른 심리적 적응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거주기간과 교육기간을 통제하였던 이전 연구를 고려하여, 자기효능감과 남한문화적응은 남한 거주기간 및 교육기간과 공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남한거주기간과 남한 교육기간을 통제한 후 상관관계를 다시 분석한 결과, 남한문화적응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는 문화적응과 심리적으로 다른 구성개념과 변별되는 개념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경험을 남한 및 문화적응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민감한 지표로 보아, 탈북자 문화적응척도가 남한 공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공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을 잘 변별해 주는지 살펴본 결과, 공교육 유경험

집단은 무경험집단에 비해 남한문화적응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북한문화적응은 유의하게 낮은 차이를 보여 두 집단을 타당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탈북자 문화적응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절하게 나타나 탈북자의 문화적응양상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의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척도 타당화는 우선적으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 초중반을 포함하였던 바, 성인을 포함한 타당도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 성인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응척도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응 양상과의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척도가 문화적응 내용상의 구성개념이 아닌,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이차원성을 하위척도로 검증한 것으로, 이를 보완한 본 연구의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역시 남한문화적응과 북한문화적응을 구별하여 타당화한 반면, 탈북자 문화적응의 내용적인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는 검증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문화적응에 민감한 구성개념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탈북자 역시 난민이자 이주민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로, 남한 내에서 북한에서의 독자적인 문화적 행동과 양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탈북자의 문화적응에 보다 민감한 지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인원이 70명으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은 인원임을 한계로 들 수 있겠다. 탈북자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소수자 집단으로서 재북 가족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신분노출과 개방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폐쇄적인 성향이 있어 연구대상 모집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탈북자 집단의 인구비례에 따라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표집하여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탈북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의 타당화 작업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6 문항으로 비교적 탈북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여 실시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바, 앞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여 탈북자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문화적응의 매개 또는 중재 역할 등을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문화적응 수준은 심리검사 해석과 심리치료,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드러나 있는 바, 탈북자의 문화적응 측정을 통해 탈북자 문화적응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탈북자의 문화적응양상을 고려한 양질의 책임감 있는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테이터솔루션.
- 김성희, 김현아 (2005).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도움요청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6, 693-712
- 김연희 (2005). 북한이탈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과정이론의 적용.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혜선 (1995). 인지적 평가와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윤여상 (2006). 새터민 정신건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통일부 정책연구.
-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93-718.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채정민, 한성렬, 허태균, 김동직 (2002). 북한이탈주민용 문화적응 척략척도 개발.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2년 동계학술대회, 85-94.
- 채정민 (200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일부 자료실 (2008). <http://www.unikorea.go.kr>에서 인출.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161-178.
-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 Atkinson, D. R., Tompson, C. E., & Grant, S. K. (1993). A three dimensional model for counseling racial-ethnic minorit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1, 257-27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new findings* (pp.9-25). Boulder, CO: Westview Press.
-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 69-85.
- Berry, J. W. & Sam, D.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 Brown, M. W., Cudeck, R. (1989).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uellar, I., Harris, L. G., & Jasso, R. (1980). An acculturation scale for Mexican American normal and clinical population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199-217.
- Cuellar, I., Arnold, B., & Maldonado, R.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II: A revi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7(3), 275-304.
- Dion, K. L., & Dion, K. K. (1996). Chinese adaptation to foreign cultures. In M. H. Bond(Ed.), *The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pp.

- 457-478).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eon, W. T., Hong, C. H., Lee, C. H., Kim, D. K., Han, M. Y., & Min, S. K. (2005). Cor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2), 147-154.
- Magana, J. R., de la Rocha, O., Amsel, J., Magana, H. A., Fernandez, M. I., & Rulnick, S. (1996). Revisiting the dimensions of acculturation: Cultural theory and psychometric practic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 444-468.
- Marin, G., & Gamba, R. J. (1996). A new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for Hispanics: B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BA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 297-316.
- Mavreas, R. R., Bebbington, P., & Der, G. (1989). The structure of and validity of acculturation: Analysis of an acculturation scal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4*, 233-240.
- Montgomery, G. T., Arnold, B., & Orozco, S. (1990). MMPI supplemental scale performance of Mexican Americans and level of acculturatio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54*, 328-342.
- Moyerman, D. R., & Forman, B. D. (1992).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 meta-analytic study.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4*, 163-200.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 Redfield, R.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Ryder, A. G., Alden, L. E., & Paulhus, D. L.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A head-to-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tephenson, M. (200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ephenson multigroup acculturation scale(SMAS). *Psychological Assessment, 12*(1), 77-88.
- Suinn, R. M., Khoo, G., & Ahuna, C. (1995). The Suinn-Lew Asian self 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ross-cultural informa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3*, 139-148.
- Zea, M. C., Anser-Self, K. K., Birman, D., & Buki, L. P. (2003). The abbreviated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empirical validation with two Latino/Latin sampl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2), 107-126.
- 원고접수일 : 2009. 1. 23.
수정원고접수일 : 2009. 5. 12.
게재결정일 : 2009. 5. 18.

North Korea-Defector Acculturation Scale Validation Study

Eun-Kyoung Kim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 (VIA)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acculturation of immigrants settling in Canada.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Korean version of the VIA, in order to measure the acculturation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who settle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70 North Korea adolescent defectors. Reliability, assessed by Cronbach's α , was .63, .80, .82 for the full scale, the North Korea acculturation subscale and the South Korea acculturation subscale, respectively, which confirm the Korean VIA's reliability. Item refinement resulted in a 16-item version of the North Korea defector acculturation scale because 4 items showing an item-subscale correlation lower than .40 were eliminated. A two factor structure model exhibited a reasonable fit on the basis of overall fitness criteria (CFI = .865, TLI = .830, RMSEA = .080) acquired by using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Korean version of the VIA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cculturation-related variables, North Korea defectors' acculturation strategy type and belonging to North Korea results. However, the Korean VIA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lf efficacy, which confirm discriminant validity. These results suggest satisfactory construct validity. Finally, criterion validity was supported by using the group that had a South Korea public school education and group that didn't.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cculturation, North Korea defector, scale validation, 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